

창원 의회 소식

제19호

천주산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창원의회소식

2016. 4월 (제19호)

발행인 창원시의회의장

발행처 창원시의회 사무국 055-225-5331~5

주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표지사진 천주산 진달래



의회소식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council.changwon.go.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창원시의회

CONTENTS / 목차



- 04 **개 회 사**
- 06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53회 제2차정례회(2015. 11. 25. ~ 12. 18)
 - 제54회 임시회(2016. 1. 25. ~ 1. 27)
 - 제55회 임시회(2016. 2. 17. ~ 2. 23)
- 23 **예산심의 활동**
- 25 **시정에 관한 질문**
 - 제53회 제2차정례회
- 27 **5분 자유발언**
 - 제53회 제2차정례회
 - 제54회 임시회
 - 제55회 임시회
- 36 **건의안 및 결의안**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규탄 결의(안)
 -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
- 43 **위원회 활동**
- 4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54 **언론 보도자료**
- 72 **의원 칼럼**

존경하는 10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 장 유 원 석

매서운 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시기이지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54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과 희망 속에 2016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늘 지나간 해는 다사다난했다고 표현되지만, 돌이켜 보면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첫 발을 내디딘 의미있는 한 해였고, 관광과 첨단산업의 투 트랙 전략으로 창원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창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창원시는 시민 행복을 위해 본격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기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대내외 경제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하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의 국가적 정책 이슈화, 첨단산업 육성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창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뜻을 높이 받들며, 시민이 행복한 도약의 새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병신년 새해, 본격적인 도약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본연의 자세를 지켜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본격적인 도약의 길에 함께 하며, 시민 모두가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편안한 노후, 그리고 평등한 교육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의 과제를 해결하는 의회, 어려움에 공동대처하는 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의 힘이 결집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게 되는 제54회 임시회는 올 한해 의정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임시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 유 원 석



● ●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5. 11. 25. ~ 12. 18. 2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 의 자 : 김석규 의원 등 12명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2014.10.28.)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의회를 상징하는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표지를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전략 마련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창원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동안의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 제명, 관련 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위원 자격, 위원 수를 변경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 지원 사업, 평생학습박람회, 학습동아리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자치법규 등을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 도모

▣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우수학생 해외탐방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제명 변경 및 용어를 정리하고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 대상범위를 고등학교 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학교사정에 맞게 선발하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해외탐방 지역을 예산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변경과 개정으로 법령 제명 및 근거 조항에 맞도록 우리시 조례 개정

▣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함.
-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진해국가산업단지 중형조선소 건설사업 4공구 시설(도로)사업 완료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 읍·면·동 주민들의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주민화합행사(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정혁신 이슈선점, 첨단산업의 건전육성 등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처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신설, 통폐합 등 행정기구 개편하고자 함.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정비를 위하여 부서 신설, 통폐합 등 행정기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주기철목사 기념관 준공에 따른 관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제명 변경 등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02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산물 범위를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당초 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한은정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급식 지원대상과 급식기관의 요건, 운영자의 지정 및 지원과 의무, 위생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종대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법령 위임 근거 없는 공설시장 사용 보증금 납입 규정 및 시장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남은 사용료 미반환 관행을 개선하여 시장 상인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02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해당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근거로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특별)자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기초자치단체에 준용하기에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원봉사단체가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협의체 명칭과 내용 등을 조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일부 개정에 따라 법 제2조제6호의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의안번호 제2014-305호)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시설에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공포, 2016.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없는 문화예술(생활·전통문화 포함)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검사종목(암표지자 검사)을 신설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노창섭 의원 등 9인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대행자 제재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기하려는 것임.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자원재활용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마련과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02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오기 및 혼동을 주는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 창원시 북면 골프연습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북면 골프연습장의 이용시간 연장 및 휴장일을 변경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관광진흥 시책의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시민의 화합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자문을 위하여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을 확충하고 해안도로와 제황산공원 주변과의 순환형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 11월 관련 부대와 노선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에 따라 저촉되는 기존시설(강당 등 건물 4동 및 교량 2개소)에 대한 대체시설을 신축 및 개량하여 기부하고, 국방부재산을 양여받기 위하여 우리 시와 국방시설본부 간에 체결하는「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안)」으로서

⇒ 2015년 9월 군사시설 이전 건의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군사시설 이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에 의거 합의각서(안)을 의결(동의) 받고자 함.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역 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집행가능시설 및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 ⇒ 2004년 및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68개소 4.39km²)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는 대지 일부가 2014년 12월 추가 해제됨에 따라 건축가능 최소대지 규모(60m²)를 갖춘 토지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주민 재산권 확보 및 토지이용계획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 ⇒ 편입되는 면적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취지(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

▣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6. 1. 25. ~ 1. 27. 3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 제 의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핵폐기 요구를 무시하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별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이민희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승자독식으로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왔으나 한계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물 취득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물 취득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 람사르총회 개최지인 주남저수지가 습지보전법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상의 보호가치가 있어 생태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 주민 발전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및 민·관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함.

▣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및 관련 위원회 구성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2008년 정비구역지정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297호, 2008.07.03) 후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최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함.

구역지정 후 사업재개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함에 따라 법령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을 포함하고 인접지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기반시설을 조정하며, 주택선호규모 변화로 인한 공동주택 계획세대수 증가 및 사업시행예정시기를 변경(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정비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 함.

02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55회 창원시의의회 임시회

제55회 창원시의의회 임시회

(2016. 2. 17. ~ 2. 23. 7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

- 발 의 자 : 김우돌 의원 외 9인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 ⇒ 그간 산업현장의 재해, 장애 등을 예방·진단하기 위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 창원시는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 기계산업뿐만 아니라 로봇산업과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어 산업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며 미래 의료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정밀의료 분야의 활성화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 ⇒ 창원시는 창원시 소재 대학 및 지역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학 및 지역의료기관의 뛰어난 연구 인력과 첨단 시설을 활용하여 우수한 의료인의 양성이 가능함.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 발 의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창원시의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을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정부가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전략 마련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 12. 28.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정부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었던 세제지원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세제혜택 연장을 결정한 정부 취지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임.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및 지원 관리 사무가 제2부시장 소관인 균형발전과에서 제1부시장 소관인 경제기업사랑과로 이관됨에 따라 상권 활성화재단 이사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02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5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역보건법」(2015. 11. 19. 시행, 2015. 5. 18.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이 조례 제1조에 인용한 근거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이민희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 부피대비 과도하게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므로 미화원의 작업환경을 보호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을 제한하기 위함.

☐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 2012.08.02)되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구성개요

- 일 시 : 2015. 11. 25.(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 위 원 수 : 9명
- 안 건 명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이옥선	김삼모	박춘덕, 김석규, 노종래, 김종대, 강영희, 이천수, 이해련	

2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 (2015. 11. 25.)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 (2015. 12. 08.)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 안건제안 및 사항별 설명 청취·심의
- 제3차 회의 (2015. 12. 09.)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 계수조정 및 의결
- 제4차 회의 (2015. 12. 17.) :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 계수조정 및 의결

3 심사결과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03 :: 예산심의 활동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심의 활동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총괄(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고
			금 액	증감율	
계	2,530,809,801	2,473,692,071	57,117,730	2.31%	
일반회계	1,913,573,517	1,873,656,519	39,916,998	2.13%	
특별회계	617,236,284	600,035,552	17,200,732	2.87%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총괄

(단위 : 천원)

기금수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14개 기금	126,206,175	20,254,890	50,473,254	95,987,811	△30,218,364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계	2,753,419,854	2,750,561,648	2,858,206	0.10%
일반회계	2,017,691,901	2,033,457,465	△15,765,564	△0.78%
특별회계	735,727,953	717,104,183	18,623,770	2.60%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기금수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당초	15개	103,379,380	45,081,439	31,828,474	116,632,345	13,252,965
변경	15개	103,379,380	45,359,308	22,792,095	125,946,593	22,567,213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2. 10. (수) 10:00 ~)

시정질문



김동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석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동읍 대신면 주남저수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 창원시 동읍 대신면 주남저수지 인근 웰컴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반려된 것은 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 주남저수지의 종합관리계획이 6년째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선이 그어진 영역은 보존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머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풀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답변 | 주남저수지는 창원에 내려진 복덩어리다. 생태공원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주민들에게 영업 등 인센티브를 주면 주민들도 이익이고 창원 전체가 이익이다. 아시아 최고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달라.

창원경륜공단 정년과 누비자 인력운영 기간제 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질문 | 창원경륜공단 정년과 누비자 인력운영 등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 누비자 운영 인력 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차량 운전과 동시에 배송까지 맡아 격무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고용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했겠다.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동시에 누비자 배송 근로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삼모 의원

경제복지문화
여성위원회



송순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민간 흡연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질문 | 민간의 흡연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다. 대부분 건물이 금연지역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연 구역은 엄격히 제재하되 흡연실 설치 지원으로 흡연장소를 손쉽게 제공해 비흡연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 비흡연자에 관해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정부정책이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은 흡연자의 권리보다 건강에 더 유의하고 있다. 흡연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일논란을 빚는 이은상, 김동진 동상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 재경향우회에서 「가고파」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동상을 시민 모금을 통해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친일 논란을 빚는 이은상·김동진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립 장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 창원시는 친일, 친독재를 미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경향우회에서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동의가 없는 한 시가 주도해서 건립하거나 시의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

5분 자유발언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2015. 11. 25. 수)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진해 안민터널 앞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교통량이 증가하는 진해구 안민터널 인근도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진해지역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안민터널은 설계 당시 적정 운행 수준에 크게 웃돌면서 출·퇴근 시간 도심전체가 마비되어 사회간접자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터널 출구에서 진해경찰서까지 고가도로 또는 3호 광장 입체교차로를 제안한다.



배여진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횃집 수족관 살균정화기 설치해야”

횃집 등 수족관의 위생을 위해 해수수족관의 살균정화기 설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창원에는 약 870여개의 해수수족관이 있는데 대다수는 활어업체와 해수물차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신기술에 의한 해수수족관 살균정화기를 각 구청별 5개소씩 시범으로 설치해 경과를 검토한 이후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자.



김우돌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주남저수지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만들어야”

주남저수지에 체류형 생태관광지 조성을 제안한다. 지난 2011년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은 수립되었지만 당초 약속했던 주민지원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수지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제공 등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보해 철새 보호 노력과 함께 시급하게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진해해양공원 담당부서 일원화 해야”

진해구 해양공원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의 일원화를 촉구한다. 해양공원내 솔라타워는 경제정책과, 어류생태학습관은 환경정책과, 해양생물테마파크는 해양정책과로 담당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해양생물테마파크와 올해 개장한 어류생태학습관의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 ●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5.12.11. 금)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주남저수지 보전과 주민이 행복한 생태관광을 촉구하며”

주남저수지는 연간 40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는곳으로 철새탐조대, 람사르 문화관, 생태학습관, 환경스쿨, 생태탐방로, 주차장 3곳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습지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우선 법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주민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여 주남저수지 보호구역과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생태관광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이용지역을 설정하는 등의 종합관리계획을 논의 해야 할 것이다.



이옥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석곡 일반산업단지 승인요청 반력을 촉구하며”

석곡 일반산업단지 사업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2번에 걸쳐 반려되었던 사업신청이 현재 승인 절차를 재 추진중에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뿐 만 아니라 사업예정지는 생태환경상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며, STX조선 사업에서 조선소를 짓고자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수정마을 바로 인근이며, 산단조성 예정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산업단지 입지조건으로 부적합한 곳이다.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12.18. 금)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한국 민주주의 전당은 반드시 우리창원(마산)에 건립되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은 이 땅의 민주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기념관을 비롯하여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자랑스러운 과정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피 흘려 쟁취한 소중한 이념으로 영원히 지키고 가꾸어 가야한다.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 전당은 3.15와 4.19 부마 민주항쟁등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민주화 운동의 도시 마산에 건립되어야 한다.



김헌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진해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에 위한 노력”

진해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가 유치되면 생산유발 효과 9조 5천억원, 부가가치효과 4조원, 고용유발효과 100여만명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단체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108만 시민과 시장님께서 뛰어난 정치적 역량과 두터운 인맥을 활용하여 테마파크 유치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분의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서켜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에 위한 지원 촉구”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요인은 결혼과 자녀양육, 취업기업의 가치관이 보수적일 때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련한 법과 제도 미비로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국 몇몇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기업과 여성기업인 만을 위한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해 제공 하는 등 여성기업인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 창원시도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제도의 마련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박춘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진해 외국인 학교 설립 촉구”

2014년 4월 경제자유구역청 내 외국인 학교 설립부지에 대하여 학교보건법과 남문지구 개발과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여 창원시에 구)육대부지를 포함한 적정부지를 물색 검토중에 있다. 진해 구)육대부지에 산·학 연구단지와 외국인 학교가 조합을 이루어야 진해 교육단지 완성과 창원시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김삼모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흡연자의 흡연권 인정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 촉구”

흡연으로 조성된 세금을 가지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및 분쟁 해소에 당연히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이런갈등과 분쟁을 위한 흡연실 설치의 흡연자의 건전한 흡연 문화를 만들고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일 것이다. 창원시는 공공시설 부문과 민간시설 부문을 구분하여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간접흡연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흡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강영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팔용지역 내동천 범람대책 수립 촉구”

의창구 팔용동 일원 내동천은 구 39사단 입구 중동에서 시작하여 유통단지 부근 창원천으로 연결되는 지방하천으로 지난 2014년 8월25일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어 불과 2-3시간 만에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창원시에서 지난 9월 24일 내동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아직까지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금번 39사 이전부지 개발시 본 구간이 반드시 정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송순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은 항일독립과 반독재 민주화란 가치와 정체성을 헌법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제에 부역했던 이은상과, 일제를 찬양한 김동진, 조두남, 친일행위를 한 이원수, 흉난파가 만든 가고파, 선구자, 고향의 봄을 대한민국 3대 가곡으로 작품은 예술 그자체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안상수 시장은 밝힌바 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독립지사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민주열사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인식과 인물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자료나 사료를 통해 검증되거나 확인되어야 한다.



● ●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6. 1. 25. 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마산항 준설사업 이행해야”

마산항 방재사업 조성 전에 바다 준설을 촉구한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각종 산업폐기물 등이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다. 만약 마산구항 바다 밑을 준설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다면 환경오염과 바다 생태계 파괴 등이 이어진다



김삼모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각종 행사 지역농산물 소비해야”

각종 행사에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라. 2016년 신년인사회와 2015년 창원시의회 폐연회 및 송연회 등의 행사장 다과상에 창원 특산물인 창원단감을 찾아 볼 수 없다. 창원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도록 촉구한다.



손태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 인구감소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창원시 인구가 통합 당시에 비해 1만1435명이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는 곧 도시에 희망이 없어서 떠난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황일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국책·현안사업 국비 확보 나서야”

창원의 각종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비확보에 나서야 한다. 로봇랜드,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서항해양공원 조성 등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비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김이근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과소 읍·면·동 대동제 서둘러야”

과소 읍·면·동을 통합하여 대동제를 서둘러야 한다. 통합 후유증을 하루 빨리 치유하고 시민의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부작용이 있겠지만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을 조속히 시행하라.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6. 1. 27. 수)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돌섬터미널 이전 약속 준수해야”

돌섬터미널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돌섬은 국내 최초 해상 유원지로 32년 동안 1400만 명이 방문했다. 지난해 12월 돌섬터미널이 철거됐으나 돌섬해피랜드 선박은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박옥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노인복지시설 불균형 개선해야”

노인 인구대비 부지 면적이 협소하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수용 능력 한계로 이용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한다. 하루 빨리 노인복지시설의 불균형을 개선하라



이천수 의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대책 세워야”

지지부진한 마산합포구 수정리의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대책을 촉구한다. 경남도는 도비 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현재 시 재정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



노창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불법 구조조정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불법 구조조정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한다. 저성과자 해고로 예상되는 일반해고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제도를 무력화해 구조조정 합법화 수단으로 악용되기 충분하다. 부당노동행위와 구조조정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라.



주철우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입해야”

공유경제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면 이미 공용자전거 누비자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보다 쉽게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다



김석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생활임금제 도입해야”

고용안정과 실업 최소화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한다.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 중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창원시뿐이다. 좋은 일자리를 통한 노동이 아름다운 창원시를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

● ● 제5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6. 2. 17. 수)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석동주민센터의 신축과 주차장 조성을”

진해구 석동주민센터 신축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한다. 석동주민센터는 상담실이 좁아 컨테이너 박스를 민원실로 대체하고 있다. 건물이 협소해 주민센터의 기능이 어렵다면 반듯한 주민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도리다. 석동사거리 300평의 사유지나 석동체육공원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주차난을 해소해야한다.



박춘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진해화장장의 철거와 위령비 건립해야”

진해화장장 철거와 위령비 건립을 촉구한다. 진해화장장은 노후 정도가 심각해 보수작업이 아닌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해화장장은 폐쇄시키고 신축 이전해야 한다. 고인들이 누웠던 그 자리에 반려동물이 눕는다면 고인들을 참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진해화장장을 철거해 그 자리에 위령비를 건립하고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이옥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마법인 소유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

경남대 한마법인 소유의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학교 부지를 늘렸으며 월영동 일대를 주민들에게 분양·매각하면서 현재 도로부지만 한마학원 소유로 남아있다. 이 도로로 인해 도시가스 설치나 아파트 재건축 등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



방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대원3지구 주택 재건축 원활한 추진을 ”

창원시 의창구 대원3지구 주택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한다. 대원 3구역은 원주민 요구로 정비구역에 지정됐지만 일반 재건축 지역보다 용적률이 낮은 146%로 지정됐다. 소유자 개인별 추산분담금을 고지한 후 조합설립에 동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희철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해야 ”

방범용 CCTV(폐쇄회로TV) 설치 확대를 촉구한다. 강력범죄와 성폭력, 절도 등 치안불안에 대해 SNS상에 창원 시민들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나, 관련예산은 전년 수준의 절반도 안된다. 시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송순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무상급식에 앞장서는 자치체가 돼야 ”

창원지역 무상급식이 2014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내서 주민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입은 급식비 손실이 무려 43억 원에 달한다. 창원시가 시·군단체장협의회에서 급식비 지원을 협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선도하는 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창원시의회는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이러한 도발행위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하여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창원시의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창원시의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창원시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간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창원시의회는 범정부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6. 1. 25.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창원시의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일련의 도발행위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악화시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정부가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창원시의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창원시의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창원시의회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경제·금융 지원과 국제 경제체제에 접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도 다할 것을 촉구한다.
4. 창원시의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6. 2. 17.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

최근 국·내외 보건·환경 분야와 의료산업 분야는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위기상황과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바, 국가 의료정책의 미래 지향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산업현장의 각종 재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산업의료 분야의 전담인력 및 2014년의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의 메르스 바이러스, 2016년의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질병관리와 역학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미래 의학인 정밀의료 분야는 의학과 의료의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전문 인력의 역할과 진출분야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창원시는 경제개발시대의 국가산업기반과 관련한 역사와 전통, 역할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산업의료대학의 입지가 월등히 우수하며 산업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가지 여건과 부지 확보도 용이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의료대학 설립은 산업도시, 기업섬김의 도시인 창원시가 최적지이며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은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이 열망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국가 의료정책의 미래 지향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국가차원의 의료 발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1. 창원시와 경남도는 서로 협력하여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2. 대통령과 청와대는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과 의료산업의 발전,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의 공약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3.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과 지원이 실현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과 관련된 법령 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여 동남권 발전을 위한 유권자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2016. 2. 17.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 부의장 동정

창원시의회 김하용 부의장은 2015년 12월 4일 진해사회복지관에서 제15회 지체장애인의 날 한마음 복지증진 사랑의 쌀 나눔행사에 참석하여 진해구 지체장애인회원간 단합심을 증대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하여 평소 소외된 마음의 상처를 치유시키고 자립의지를 재확립 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은 장애우에게 표창하고 축사를 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철)는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11. 25 ~ 12. 18 (24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



▣ 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가결하였다.



▣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3. 10~3. 17 (8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2016년도 기획행정 소관부서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16년~2020년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4회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제53회 창원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정기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마산문화 건립장,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부지, 마산봉암공단화관 건립장)하여 현장 및 사업 현황을 청취하였다.

▣ 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으며
▷ 신설 부서 및 당면현안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건을 청취하였다.

▣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창원시 지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성주동 민원[자치]센터 건립장, 신항 북측배후 부지 내 공공청사용지 매장)하여 현장 및 사업 현황을 청취하였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소관),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다.

▣ 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제2차 정례회기간중인 12월14일은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민원인 주차불편 해소방안과 시설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명서 시장을 방문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방안에 대한 ICT융합환경 구축으로 스마트시장 만들기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이치우)는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 ▷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을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2월 2일, 해양생태관광자원 아이디어 발굴과 시정 접목을 위해 울산시 고래문화특구 관광인프라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53회 창원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 2016년도 주요업무 청취,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12월 4일 창원대학교 체육학과 21세기 청소년의 미래가치 유원석 의장 특강



● 12월 4일 관내 중학생들 본회의장 견학



● 12월 4일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 복지증진대회 김하용 부의장 참석



● 12월 6일 진해공도장(벽해정)준공식 참석



● 12월 7일 2015년 창원시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12월 9일 중국남통시 국제자매도시 체결식



● 12월 9일 으뜸마을 만들기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 12월 15일 2015년 창원보육센터 입주 졸업기업 워크숍



● 12월 15일 창원광역시 승격추진 서명자 대표 송년 한마음 단합대회



● 12월 17일 창원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 12월 17일 진동면 신축 청사 개청식



● 12월 18일 창원시 어린이집 총연합회 5대·6대 회장 이·취임식



● 12월 22일 대한노인회 창원시 진해지회 준공식



● 12월 23일 진해글로벌 테마파크 복합리조트 유치결의 대회



● 12월 23일 진해글로벌 테마파크 복합리조트 유치결의 대회



● 12월 28일 창원시 올해의 최고경영인 근로자 기업명예의 전당 헌정식



● 12월 28일 창원시 체육회 유원석 의장 특강



● 12월 29일 제183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 12월 31일 제야의 타종식



●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진해루)



● 1월 1일 진해 충혼탑 신년 참배



● 1월 2일 국립 3·15 민주 묘지 신년 참배



● 1월 4일 2016년 의회사무국 시무식



● 1월 5일 2016년 창원시 새해 인사회



●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 1월 29일 2016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 2월 3일 설맞이 보호시설 방문



● 2월 3일 설맞이 보호시설 방문



● 2월 3일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



● 2월 12일 의장단 간담회



● 2월 17일 창원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기관 토론회



● 2월 23일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방법 교육



● 2월 24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창원시 협의회 정기회의



● 3월 1일 3·1절 추모비 참배

창원시의회 제53회 제2차 정례회개최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49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2월 25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이 있으며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현장방문활동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는 금년 한해 첨단산업의 적극유지와 관광산업의 집중육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광역시 승격 토대 마련과 광역형 도시기반 확충으로 성장과 안정의 조화로운 공존 속에 새롭게 도약하는 큰 창원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신뢰와 믿음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상생 협력하여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을 소통과 화합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연초 계획했던 현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점검하여 줄 것과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소외되고 힘든 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힘 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을 다루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과 예산안 심의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배제 및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옥선 의원” 선임



창원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옥선(현 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삼모(상남·사파동)의원을 지난 11월 25일 각각 선임하였다.

예결특위는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박춘덕(의회운영위), 노종래·김석규(기획행정위), 김종대·김삼모(경제복지문화여성위), 강영희·이천수(환경해양농림축산위), 이옥선·이해련(도시건설위)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옥선 위원장은 “이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본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예결특위가 될 것임을 명심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결위원장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예산 심사에 있어 행사성 경비 등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 봉암공단회관 건립장 등 현장방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에서는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산문화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장 방문을 통하여 시설의 증점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애로 및 불편사항도 청취 하였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하게 질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보였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다누리 아쿠아리움 방문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이치우)는 제53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5일 해양공원 어류생태 학습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해 단양의 우수 민물생태학습관으로 손꼽히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을 방문했다.

환경해양농림축산 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 으로부터 다누리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및 아쿠아리움의 시설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순치수조와 전시수조 등을 둘러보고 우리시 어류생태 학습관과 비교 분석하고 4D체험관 등을 직접 체험해본 뒤 도입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이치우 위원장은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어류생태학습관 리모델링시에 철저한 사례 분석과 해양 생물테마파크의 중복적인 구성을 지양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현장방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2015. 11. 25 ~ 12. 18)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14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 시장인 명서시장 현장을 방문하였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주차대수부족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방안과 수영장 및 시설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수요음악살롱, 친절상인 선발대회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ICT융합환경 구축으로 스마트한 시장 만들기에 대한 설명 청취와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53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6일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팔용터널 공사현장 및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지, 사파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등 창원지역 주요 사업장 일원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팔용터널 민간투자 사업은 광역권 교통수요 변화 대처 및 도심지 연결터널 개설로 간선도로 교통혼잡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7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68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인접 부지의 계획적인 개발 및 산업용지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6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가능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로 국가산업단지 배후시설 지원은 물론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개발가능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로 국가산업단지 배후시설 지원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유원석 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창원시의회 유원석 의장(태백, 경화, 병암, 석동)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2016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8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였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최, 조선일보사 후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전국 기초의회의원 중에서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유원석 의장은 전국 최초 자율통합도시인 통합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 1대 전반기 부의장과 2대 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창원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경남 18개 시·군의회간 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원석 의장은 “앞으로도 창원시의 발전과 경남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소통하는 참된 봉사자가 되겠다” 말했다.

이상인 창원시의원 “7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경남유일



창원시의회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새누리당,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시상하는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약속대상 평가단에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시의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을 통해 민선 6기 지방의원의 현재까지 공약이행현황 및 주민소통 활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상인 의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7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렸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원들의 공약이행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마련한 상이다. 올해 광역·기초지방의원을 통틀어 경남지역에서 2009년~2015년까지 7년 연속으로 수상한 것은 이상인 의원이 유일하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연속으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8월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라는 논문으로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연속으로 선정된 것은 약속했던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고, 특히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5년 전국 지방의회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한은정 의원 선정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한은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사진)이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전국 250개 지방의회 3,500여명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상으로 지난 12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2015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한은정 의원은 창원시민들에게 환경 현안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의원으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지역 환경문제 현안사항들에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가장 높이 평가된 의정 활동은 “도시재생”이다 그중에서도 산업유산의 재활용이다. 서유럽의원 연수 중 오래된 건물에 대한 유럽인의 생각에 동의하고 보고 배운 부분을 활용하려 했다. 의회 주요보고업무 중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사업에 산업유산의 자료는 빠져있어 질의 했고, 기름때 묻은 산업현장의 스토리가 그 어떤 새로 지은 건물보다 감동이 있음을 강조했다.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의 “창원시의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푸드연구회 활동으로 창원시 로컬푸드 정책과 공공급식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심의 후 상정하여 2015.12.11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함안보와 합천보의 부실공사로 인한 폐해(세굴현상과 파이핑현상)와 여름철 녹조사태를 진단했다. 5월에는 산란기를 맞아 상류를 향해 물살을 가르며 오르고 싶은 잉어, 강준치가 보에 막혀 오르지 못하고 있었고 인위적으로 만든 어도조차 공사중인 안타까운 상황을 보기도 했다. 합천보에는 강의 가장자리뿐 아니라 강의 중간 지점까지 녹조 덩어리가 떠다니는 것을 확인했고, 함안보 소량교 아래에서는 어마무시한 끈적한 녹조에 할 말을 잊기도 했다. 11월 18일에는 4대강 마지막 사업인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흐르는 강인 내성천, 곧 물길이가 끊기고 모래가 사라질 현장을 시찰하고 왔다.

또한 수명 다한 고리 1회기 즉각 폐쇄 결의안을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가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는 원전을 사용하는 중이다.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경화역 탈핵캠페인 활동을 벌여 일본인 여행객이 더 많은 관심 보여 주었다.

창원의 랜드마크 세계 최고의 철새 도래지 주남저수지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몸살을 앓는 중에 환경부와 해수부 담당관을 직접 만나 주남저수지의 보존의 필요성과 사업의 오해 부분을 설명하고는 “주남저수지 보전과 주민이 상생하는 길 찾기” 주제로 주민과 공무원과의 토론회를 가지는 등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인식 전환에 그 역할이 컸음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은정 의원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큰 상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정책에 솔선수범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환경수도 창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하며, 시민인식 전환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이민희 의원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방의원들이 지역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등 매니페스토 이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매년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및 주민소통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201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에서 광역의원 40명과 기초의원 39명으로 총 79명의 지방의원이 선정되었으며, 금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이민희 의원은 지역 현안 이해도와 적절한 대책 마련으로 선거공약을 성실히 지켜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민희 의원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시상식은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민희 의원은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관한 전국 최우수 친환경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다.



창원시의회 제54회 임시회개최



창원시 의회(의장 유원석)는 25일 제54회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15년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의미 있는 한 해, 관광과 첨단산업의 두 트랙 전략으로 창원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2016년 새해에도 시민 행복을 위해 본격적인 도약을 꿈꾸며 시민의 뜻을 높이 받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약의 새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창원광역시 승격의 국가적 정책 이슈화, 첨단산업 육성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의회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뿐 아니라 집행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에 함께 하며, 시민 모두가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편안한 노후, 평등한 교육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 힘써 나갈 것과 창원시의 과제를 해결하는 의회, 어려움에 공동 대처하는 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의 힘이 결집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 등 총 11건을 다룰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25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월 26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시민 제안 조례 제정 검토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는 1월 26일 오후 4시부터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좋은조례연구회 회원(정영주, 이찬호, 이해련, 강영희, 노종래, 김이근, 조영명, 배여진, 이민희)들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균등한 독서기회 보장과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독서문화 진흥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타 시·군·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대한 비교분석 및 회원간 연구자료 발표 등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창원 시민의 특색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는 창원 KBS 1TV 감시자들 프로그램에서 취재였으며,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취재하여 매주 화요일 창원 KBS 1TV를 통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좋은조례연구회 노판식 대표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조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은 2월 1일 진해재활원 방문에 이어 2월 2일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설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나눔터외3)을 방문하고 위문품으로 과일 62박스(2,000천 원)를 전달하고 위로, 격려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시설 근무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창원시의회 의장(유원석)은 “한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달의 첫날의 의미인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관광산업의 특화육성, 발굴을 위한 고래문화특구 현지견학 사례연구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이치우)는 2일 창원시 해양관광산업의 특화 육성 발굴과 현재 어류생태학습관 선진화 리모델링을 위해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방문하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현황 청취와 사례 등을 연구하며 창원시정과의 접목 등을 논의하였다.

현지 방문에서는 산업도시의 이미지에서 역사, 문화적 자원인 고래를 테마로 관광산업을 특화하고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관광문화 복합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 고래바다 여행선 등 시정 접목을 위해 연구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고래문화 특구 내 고래박물관 등을 둘러본 이치우 위원장은 “우리시 해양관광 자원산업 접목과 함께 해양생 물테마파크의 리모델링에 철저한 사례 분석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와 지역건축사회 및 창원마산진해 재개발·재건축 무산을 위한 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3일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시의원, 지역 건축사회, 연합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관련 의견 교환 및 재개발·재건축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관련해 상호 의견 교환 및 현재 창원시 재개발·재건축 방향에 대해 상호 입장과 여러 고충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창원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시에서도 재개발·재건축시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및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진 전략 마련 및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제55회 임시회개최



창원시 의회(의장 유원석)는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55회 창원시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 등 총 11건을 다루게 된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7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와 국내 경제의 투자위축, 소비감소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으로 경제전망이 밝지 않다며 시의회에서는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경쟁력 향상, 첨단산업 육성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상권 살리기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약의 새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시정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과 각종 민생 및 지역 현안 관련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검토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창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



창원시의회 연구단체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는 2월 17일 창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 기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 강화 및 시민들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창원을 조성하고자 창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시민들과 독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좋은조례연구회 회원(정영주, 이찬호, 이해련, 강영희, 노종래, 김이근, 조영명, 배여진, 이민희)과 시민, 그리고 문화도서관사업소, 작은도서관협의회, 창원시 서적협의회, 정보사회연구소 등에서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으로 열기가 넘쳤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방안들을 수렴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창원시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례들을 많이 연구하고 발굴하여 조례로 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노판식 대표의원은 밝혔다.

성주동 민원(자치)센터 건립장 등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에서는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8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민원(자치)센터 건립장을 비롯한 1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 하였다

특히, 성주·삼정자동에 대단위 아파트와 경상대병원 개원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증대가 예상되어 주민편의 문화기능을 갖춘 민원(자치)센터 건립의 시급함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사항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다

위원들은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자치)센터가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원석 의장 광역시 추진 시민 특별강연



창원시의회 유원석 의장은 2016년 3월 9일(수) 진해구 태백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창원시의 염원인 광역시 승격 추진을 위한 창원 광역시 승격 태백동 추진위원회 회의에 앞서 특별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유원석 의장은 「광역시 승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약 70여 분 동안 강연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으로 탄생한 창원시의 인구 및 행정력은 광역시보다 많은데 자치권은 기초자치단체인 행정체계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창원 시민이 함께 결집하고 노력하여 반드시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람된 의정활동을 추구하며...



유원석 의장

정부에 의해 자율적으로 3개 지역이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통합시의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삶 의 질 향상이 주된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통합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서둘러 통합이 되었지만, 지역 간 균형 발전이 통합의 명분이 되어 시청과 야구장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업의 균등배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 생각함으로써 통합 후 갈등의 단초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합 청사 문제와 야구장 부지 선정에 통합에 따른 지역간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어 지역 의원 간 많은 대화를 통하여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지역 간 반목으로는 창원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통합의 명분을 상실한 지역이기주의가 너무도 팽배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화합을 생각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창원시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의원의 도리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통합 1대 전반기 부의장과 2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원들과 소통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통합된 3개 지역을 전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자 창원, 마산, 진해를 볼 수 있도록 3일에 걸쳐 시티투어를 실시하였다. 3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와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여 통합 창원을 제대로 알기 위해 전 의원의 참여로 어느 정도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창원의 뿌리와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3개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의원들 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의원 상호간 연구로 결성한 로컬푸드 연구회, 좋은 조례 연구회, 도시발전 연구회, 창원시 시설관리물 위탁에 관한 연구회 등 의원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람된 의회 생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의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와 견제하기 위하여 정책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유명한 입법 및 법률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각종 조례 제·개정 및 법률 사항 등을 자문을 통하여 의회 운영의 체계를 정립하고, 예산안 분석 및 심사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 및 정책대안 연구를 위해 전문분야 명사 초청과 의정 연찬회를 개최하여 의원 개개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갈 것이며, 통합 6년에 맞게 이젠 지역 간 소통과 화합으로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창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써 책무를 다 할 것이다.



한은정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주남저수지를 찾은 재두루미

2016. 1. 25 창원시보 제134호 게재

드디어 주남저수지에 재두루미 잠자리가 확보되었다.

작년 12년 18일 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위하여 안상수 시장의 지시로 저수지 물빼기를 시작했고, 1월 8일 갈대섬 주변 모래톱이 드러나자 철새들은 본능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주남저수지에 철새들의 천국이 된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 생태관광지를 꿈꾸는 주남저수지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성공적인 생태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겨울 우여곡절 끝에 수문을 열기는 했지만 다가올 가을이 또 문제다. 재두루미의 안정적인 잠자리 확보를 위해 월동기에는 주남과 동판저수지의 수문을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올 10월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없애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철새 서식지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어로보상 기간도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다. 어로보상 기간이 11월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라 3월 초·중순에 주남저수지를 떠나는 철새들은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어로작업으로 다시 잠자리를 잃게 된다. 최소한 2월말까지는 어로보상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두루미 먹이터인 저수지 주변들에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철새 보호원들의 교육 강화는 물론 주남저수지의 보호구역 지정과 생태관광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능력 있고 열정적인 공무원의 전진배치가 필요하다.

새해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생생한 소통을 통해 창원시가 추진하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큰 산을 함께 넘어 갈 마인드를 가진 멋진 행정가를 기대해 본다.



자연은 그대로 방치가 제일 아름답다.

한은정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올겨울 개체 수 증가로 주남저수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민물가마우지”는 잠수를 아주 잘하는 잠수성 조류입니다. 잠수능력은 뛰어나나 깃털의 방수력은 좋지 않아서 먹이 활동 후 나뭇가지에서 날갯짓으로 깃털을 말리는 행동입니다. 지난겨울 일요일 아침 주남저수지 탐방로에서 카메라로 민물가마우지의 동영상을 담을 때만 해도, 저는 한 종의 개체 수 증가가 전체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지 못 했습니다.

최근 낙동강 상류에 이어 창녕 합천보에서도 폐사한 강준치의 뱃속에서 ‘리굴라촌충’이 발견되었습니다. ‘리굴라촌충’은 약 30센티미터 정도의 납작한 기생충입니다. 현장에서 1미터도 넘는 것들도 직접 봤습니다. 낙동강 상류와 하류의 강준치 떼죽음의 직접적인 폐사 원인은 3~4마리의 리굴라 촌충이 물고기 뱃속을 채우면서 장기 압박에 의한 손상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리굴라촌충’과 ‘강준치’의 떼죽음, 그리고 ‘민물가마우지’는 대체 연관 관계를 가질까요? ‘리굴라촌충’은 새들의 장속에서 성충으로 삽니다. 그 유충이 새들의 배설물을 통해 강물에 녹아서 플랑크톤을 거쳐, 그 플랑크톤을 먹는 강준치의 몸에 중간 숙주로 기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능력이 좋은 민물가마우지가 강준치를 먹고 새의 몸속으로 ‘리굴라촌충’이 다시 기생하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다른 새와 어류도 많은데 왜 하필 ‘강준치’와 ‘민물가마우지’인가?

예전에도 민물에 기생충은 있었지만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낙동강 수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4대강 보가 건설되기 전 기존의 강물시스템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수심과 유속의 변화가 심해 다양한 생물 종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살았지만, 현재는 흐르는 강물을 낙동강 보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깊은 환경을 선호하는 잉어과 어류인 강준치, 피라미, 붕어 등과 같은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낙동강 본류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리굴라촌충’의 최종숙주로 지목받는 ‘민물가마우지’의 개체 수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강준치 떼죽음을 “자연적 순환과정”의 일부로 본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번 강준치 떼죽음이 4대강 보 건설 이전에는 없던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히 “인위적 순환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이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낙동강의 깊어진 수심과 느려진 유속 그리고 수온 상승이 리굴라촌충에게 알맞은 서식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느끼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리굴라촌충이 인체에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세계수역사무국과 세계보건기구는 포유류와 인간에게 감염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굴라촌충’의 사례에서 보듯이 4대강 건설로 인한 우리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4대강사업 보 건설 완공 이후 2012년 녹조대량발생, 2013년 큰빗이끼벌레 창궐, 2015년 강바닥 빨층 산소고갈로 인한 물고기 폐사, 2016년 리굴라촌충 감염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에 이르기까지 매년 그동안 낙동강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생태계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 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시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식수 및 생태변화에 대한 창원시 차원의 원인규명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부른 “자연재앙”입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낙동강의 본류와 지류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던 그 환경을 깨뜨린 탓입니다.

“자연은 인간 중심의 장치가 아니라, 자연그대로 방치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315뮤직컴퍼니’ 이야기



정쌍학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315뮤직컴퍼니는 3·15의거 49주년 들던 해에 창단된 오케스트라단이다. 음악으로 의거 정신을 살리고 시민에게 민주문화를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중진 작곡가 겸 지휘자로 활동하는 설진환 단장의 주도로 창원 지역의 음대 출신으로 꾸려진 격조 있는 예술 단체로 3·15의거기념사업회가 그 산파역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단 첫 번째 공연은 ‘살매 김태홍 시인과 민주의 빛’이란 주제로 3·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염원을 음악으로 담아냈다. 당시 경남신문은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예술로 승화하고 틀에 박힌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3·15의거의 문화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개발 신브랜드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1960년 4월 11일 아침,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체가 떠오르자 시작된 ‘2차의거’를 접한 살매 김태홍 시인이 썼던 3·15의거시 십수 편을 창작곡으로 발표하는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무대였다. 또 문주원 무용가는 ‘독재는 물러갔다’는 시의 무용조곡에 춤을 덧입혀 선보여서 각광을 받았다. 그때의 3·15의거기념사업회의 기획 의도는 신선했고 문화적 의지도 남달랐다. 이후 4년 동안 ‘대음악제’를 열면서 의거 정신을 버무린 음악 예술의 맛을 당시 마산 시민에게 선사하였다.

그러나 제4회 공연을 끝으로 3·15의거 기념행사에서 315뮤직컴퍼니의 선율은 더는 들을 수 없었다. 창단의 목적인 ‘지역 음악인이 창작한 의거 정신의 예술화’라는 상징성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유명인이 출연하는 버라이어티한 공연으로 대체되었다. 315뮤직컴퍼니를 따돌려버릴 만한 상황이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지역성과 시대정신을 표방하며 자생적으로 구성된 ‘의거 정신의 전위’들을 기념사업회가 스스로 방기한 일은 무척 아이러니한 일이다. 개인적인 내 편견의 소산이겠으나, 틀에 박힌 리무진 급의 화려한 공연은 기념사업회가 줄기차게 내세우는 열렬한 ‘의거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상징적인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해서 그 역량을 키워 독창적 의미화로 성숙시켜야 마땅한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지역적 발전 방식일 것이기도 하고 새로운 3·15의거세대를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벌써 3·15의거도 56주년을 맞는 시점에 세대차도 헤아려보아야 할 다급한 문제이다.

문화콘텐츠의 보고

정쌍학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려(1766~1822)는 조선 후기의 문인이었으나 우리에게서 한국 최초의 어보인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를 남긴 이로 더 기억되고 있다. 그가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진해(현재의 진동)로 유배되어 온 후, 인근 해역을 오가며 보고 들은 경이로운 바다생물의 세계와 체험을 오롯하게 모은 책 <우해이어보>를 1803년 탈고하였다. 이는 정약전이 1814년 유배지 흑산도에서 썼다는 <자산어보>보다 무려 11년이나 앞선 어보로 우리 지역연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우해이어보>에는 어류, 갑각류, 패류 등 모두 72항목이 수록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어류의 명칭, 분포, 종류, 잡는 방법, 조리방법, 유통과정까지 기록되어 있다.

또 각 항목 아래 ‘우산잡곡(牛山雜曲)’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기속시 39편이 실려 있는데, 해당 어패류와 관련하여 바닷가 풍속이나 풍물을 재미나게 묘사했다. 가히 우리 지역의 작은 백과사전이나 박물관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김려가 첫 번째 유배지였던 함경도 부령에서 만난 한 여인을 잊지 못해 진해의 세 들어 사는 집 창문에 ‘생각하는 창문’이라는 뜻의 ‘사유(思牖)’라는 편액을 달아놓고 아름답고 애절한 연가 290편을 지었다. 바로 장편 연작시가집인 <사유악부>이다.

진해에서 만들어진 이 두 작품은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해이어보>를 현재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문화마케팅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가을에는 마산문화원의 주최로 학술심포지엄도 가졌다.

인문학자들이 참석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한 이 자리에서는 <우해이어보>가 갖는 내용의 다양성은 창원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의 활용과 진동이라는 장소성을 재탄생시킬 수 있는 문화자본의 근거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축제라는 형식으로도, 문화마케팅의 차원으로도 김려의 작품들이 유용하다는 말이지만, 창원시 당국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담당 부서에서는 심포지엄들을 통해 얻어진 문화적 결과를 깊이 헤아려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창원만의 개성 있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도드라진 문화의 한 표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근절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따른 중장기 대책



김삼모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지도 교육 등 역량 강화와 올바른 부모의 역할 관련 “소양 강좌” 의무화 제도 도입해야 한다.

- 제도 도입으로 출산 전 부모의 올바른 역할 및 책임감, 자질 높여야
-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잠재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될 때 자녀에 대한 학대 위험성 높다.
- 아동학대는 부모의 바르지 못한 가치관과 비 정상적인 가정환경으로 인한 시대적 아픔
-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 정부의 탁상은 현장 중심으로

최근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친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치사, 시신 유기까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부모의 잘못된 가정교육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생겨나는 관점에서 동일시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가해 대상 청소년이던 부모의 바르지 못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문제로 부모의 자질과 올바른 자녀지도 교육에 관련된 교육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예방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근절에 많은 해이를 느낄 것이다. 근본적으로 문제의 부모들이 있는 한, 학대는 거듭될 것이고 또한 아동학대 사건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발생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지만 아동학대에 앞서 학교폭력 근절은 제자리걸음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이 제각각이고 근절 의지가 형식적이지는 않은 건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자질향상과 가정환경 및 사회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근절은 불가능할 것이다. 결혼 등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잠재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올바르지 못한 가정환경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성장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따라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1차적 책임자인 부모의 자질 검정을 통하여 내 자녀가 비행등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가해자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일은 피해야 될 것이다.



청소년 비행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다수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결손가정의 올바르지 못한 성장에서 비롯된다는 그동안의 통계와 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폭력 및 비행행위 근절은 1차적 책임자인 부모의 가정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녀를 둔 부모의 무분별한 이혼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대책으로 부모들 대상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자녀지도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해 행복 추구란 이기적인 사고로 인해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의 성장 및 장래는 뒷전이고 이혼이란 현실도피성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미 다 자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도활동과 가해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지도 교육을 강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올바른 부모로부터 지켜지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사회 질서가 유지될 때 국가의 위상 및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나아 갈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결혼 전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 후 올바른 부모의 역할 등 자녀지도 교육을 의무화 하여 혼인 신고시 교육 이수 필증을 첨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책임감 고취 및 자질을 높이고 자녀를 둔 부모의 무분별한 이혼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성인 남녀의 결혼, 이혼, 재혼이 반복되는 과정에 비행청소년의 양성은 거듭될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될 때 자녀의 올바른 훈육은 확대로 변질될 우려 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부간 가정에서의 역할 등 올바른 자녀 양육에 관련된 소양강좌를 통하여 장차 태어날 자녀에게 올바른 이성적 가치관을 형성시켜 비행을 막고 나아가 청소년폭력과 범죄가 사회질서에 미치는 혼란을 막는다면 각종 사회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올바른 부모로부터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사회 중심이 될 때 이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정부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의지를 촉구한다. 또한 창원시는 관계 부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직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지도 교육 등과 같은 소양 강연 활동도 아동학대예방과 청소년 비행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진해 외국인학교 설립 되야...



박춘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 4월 6일 수요일 오후3시 경상남도과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도청 2층 도청 회의실에서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자 James Haddon,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창원시장, 하명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안승택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최정호 (주)진해오션리조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학교 설립을 협력하는 내용에 서명하는 협약식이 거행됐다.

이 학교는 경제자유 구역 내 처음으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입학자격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와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이 다닐 수 있다. 내국인 학생 비율은 총 정원의 30~50% 선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경남도교육청이 정하게 된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웅동지구 약 33,000㎡에 2천만불을 직접 투자하여 창원국제외국인학교를 2014년 개교예정이며, 유치원, 초·중·고(K-12)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2013년 7월 경남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부근의 병원, 골프장이 학생들의 유익한 환경에 부적합하고 인접한 물류단지의 소음 먼지 등의 이유로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을 권고하는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경남개발공사에게 내놨다

2014년 4월 남문지구(경자청)에 외국인학교 설립 부지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는 학교보건법과 남문지구 개발과 실시 계획변경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불가하다고 부산진해경제자청에 회신을 보내오는 과정을 거치며 구)육대부지를 포함한 사파지구, 용원지구2곳(시유지), 폐교된 명동분교와 안청초등학교 등에 현재 설립 부지를 검토 중이다.

제8회 창원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8회-기획행정위원회/중략) 자료를 보면 창원시 투자유치과장은 초·중·고등학교, 유아원까지 포함해서 한 1천 명 정도 잡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백억에서 4백억 정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2천만불을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된다. 나머지 금액은 기본적으로 외투 기업이나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도와고 시의 분담비율은 50대 50으로 정해져 있다. 대구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120억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와 시가 다 부담을 해서 건립한 예는 있다고 밝히고 외국인 학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2014년 외국인 학교가 개교되면 외국인학교가 없어 부산, 대구, 서울 등으로 장거리 유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유학생과 귀국하는 학생의 교육수요를 충족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창원시의 성공여부는 약속과 신뢰의 땅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진해시립화장장과 반려동물

박춘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가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환경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 등록 반려동물은 2만 184마리에 달한다.

창원시설공단은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와 시설공단은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각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과 수요 예측, 문제점을 분석해 필요성을 점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정식 허가를 받은 장묘업체는 수도권 13개소, 부산 1개소 등 14개소다.

이들 모두 민간시설로 동물도 사람처럼 화장한 뒤 납골당에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단은 반려동물 장묘시설 입지로 진해화장장을 우선 검토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곳에 화장로 2기 설치, 장례식장, 납골당 등 부대시설을 갖추지를 판단해서 진동 창원공원묘원 내 마산화장장 또는 진해 천자원 부근도 대상지로 검토한다고 한다.

공단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사회 추세에 발맞추고, 사체를 위생적·안정적으로 처리해 감염병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 등 목적으로 공공 차원의 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한다면 예산은 10억 원 내외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경남전체 10개의 화장장 중 우리 창원시는 관내 폐쇄 중인 진해 화장장을 포함해 3개의 화장장이 있다.

고성군 화장장을 비롯해 김해 추모의 공원, 남해 추모누리,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천시 누리원, 진주시 안락공원, 통영시 추모공원, 진해화장장, 창원시립마산화장장, 창원시립상복공원이다. 창원시가 시설 노후화와 환경법의 저촉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진해화장장을 폐쇄한 이후 진해지역에서 제날짜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진해화장장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창원상복공원이나 마산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3일장 후 창원상복공원에 예약하려 하지만 이미 대기 순서가 꼭 차 다음날로 미뤄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창원서 화장한 후 납골당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진해로 와야 하는 경우, 역시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 피로감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해화장장은 노후 정도가 심각해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수 작업이 아닌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예산 확보와 노후시설물의 중복투자 효율성 문제, 더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아예 폐쇄해야 하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진해지역 내로 이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지하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화장장, 장례식장, 매장·부대시설, 대형 주차시설이 확보된 원스톱 시설이 돼야 한다. 특히 시민의 고충을 먼저 이해하고 사람이 우선돼야 반려동물 처리문제도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낙엽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데



김영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산책로 공원 옆 은행나무가 찬란한 자태를 뽐내더니 하루 사이 한 잎도 남김없이 다 떨어졌다. 아무 미련도 없이 맨살을 다 드러내니 감탄이 절로 난다.

옛날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선사의 대답은 “가을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그대로 드러나지 ”라고 했다. 백암록에 나오는 선문답이다.

대개 사물은 변창하지만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니 나무만도 못한 것인가.

마음을 잘 관(觀)하여 생각을 줄여 나가는 것이 명상이다. 몸과 마음의 이완으로 내면이 고요해지면 내 안의 허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다.

안과 밖에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허물들이다. 다른 사람의 행위와 결과는 그 사람의 몫이다. 내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본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과자를 5개 줬다.

아주 기뻐다. 다음날은 3개만 줬다. 기분이 좀 언짢았다.

또 다음날은 4개를 줬다. 기분이 좋았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인간은 항상 최근의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지식이 많고 부족함도 마찬가지다.

이름이라는 형상에 집착하다 보니 본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의 나를 잊고 산다.

다가오는 것은 다 고맙고 기분 좋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관념은 이미 죽은 껌테기와 다름없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시시비비는 모두 바깥 경계이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허깨비이고 내 주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 까닭이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본성 (참 나)을 찾는 것이 선이다. 사사로운 외부에 대한 편집보다는 본래면목을 찾는 것이다. 우주의 공식을 정확히 알고 개체적인 내가 우주적인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여 아집을 내려놓으면 마니주가 바로 드러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려 근본으로 되돌아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지, 직하 무심뿐이다.

창원 문화예술특별시

김영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올해 창원시는 문화예술특별시로 나아가는 마스터 플랜과 통합 도시 브랜드를 주문하고 나섰다. 물론 그 내면에는 광역시 승격과 첨단산업도시, 관광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새 시대 큰 창원의 비전이 깔려 있다.

창원시 관광산업 투자 1년 성과를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른 것 같다. 예술,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의 미흡함과 진해 창원 마산을 잇는 공간의 창조적 활용, 지역정서의 통합이 아쉽게 느껴진다.

문화 · 예술은 그 도시의 문화적 외교이자 성장 잠재력이며, 광의의 인문학이다. 풍부한 문화, 예술은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친환경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한다. 먼저 문화, 예술 마케팅 전략과 시민 참여로 통합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창원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문화 예술도시 활성화한 후 관광산업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문화예술 중심도시 육성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에게는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지금의 백화점식 관광정책보다는 특색 있는 예술의 한 장르나 주제를 특성화시켜 찾아오게 하는 적극적인 문화예술 특화정책이 필요하다. 부산은 국제 영화제로 영상문화산업을, 해외 사례로 스페인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문화도시로 급부상했다.

만약 가상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즈도시”하면 창원 마산 하고 바로 나와야 한다.

재방문하고 싶은 예술 · 문화산업을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하여 단기적으로 세계 10대 예술, 문화, 관광도시를 벤치마킹하고 장기적으로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과 문화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그야말로 “문화예술도시” 기치 아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관된 정책과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문화예술특별시로 승화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관광수입과 고용 창출의 효과로 관광산업도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